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강성희[†]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인터넷윤리 강좌를 수강한 학생 150명으로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1년도 2학기까지 총 4학기 강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윤리 교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과 정의적인 영역에서는 교육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행동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교육 등 인터넷윤리 교육이 인지·정의·행동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덕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나, 행동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한다. 인터넷윤리 교육이 실천적 교육으로 인터넷 역기능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윤리 교육의 조기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교육 환경의 개선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터넷 윤리 교육, 통합적 도덕성 이론, 저작권 침해

A Comparison of Knowledge, Affectivity and Behavior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net Ethics Education (Focusing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Sunghee Kang[†]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To do so, I compared the knowledge, affectivity and behavior of students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net ethics education. The subjects of study were 150 students who had taken Internet ethics course in university. Upon comparing their knowledge and affectivity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net ethics education, they scored higher after education than befor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ubjects' behavior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had a tendency to increase after education, but there were not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result showed that the current Internet ethics education has some limitation in making the students practice what they know. To resolve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o do early-childhood Internet ethics education. And more research on divers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Internet ethics education is needed to produce educative results.

Keywords : Internet Ethics Education, Integrated Morality Education, Copyright Infringement

[†] 정 희 원: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논문접수: 2012년 12월 03일, 심사완료: 2013년 01월 07일, 게재확정: 2013년 01월 17일

1. 서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는 빠르고 쉬운 정보획득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주며 노동의 변화와 여가 증대로 생활의 풍요와 삶의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의 발달이 혜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위험을 초래하는 양면성을 가지듯 인터넷의 발달도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으로 인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불법적인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 개인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 인터넷 언어 폭력·사이버 스토킹 등의 사이버 폭력, 컴퓨터 시스템의 불법 침입·파괴, 인터넷 중독 그리고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 등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권 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 또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발달에 따른 역기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적, 법적, 교육적 해결책 등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윤리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도 인터넷윤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내 대학에서 인터넷윤리와 관련된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윤리 교과 내용의 특성상 윤리학, 법학, 컴퓨터학, 사회학 등 종합적인 학문적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이 인지·정의·행동이 통합된 통합적 도덕성 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005년부터 소속 대학에서 인터넷 윤리 강좌를 맡아오면서 인터넷윤리 교육에 적합

한 수업 운영과 인터넷윤리 교육의 통합적 도덕성 교육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인터넷윤리 수업을 전, 후로 학생들의 인터넷 윤리에 관한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현재 대학 인터넷 윤리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인터넷윤리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는 특정 분야에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2. 인터넷윤리 교육

2.1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현황

2.1.1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개설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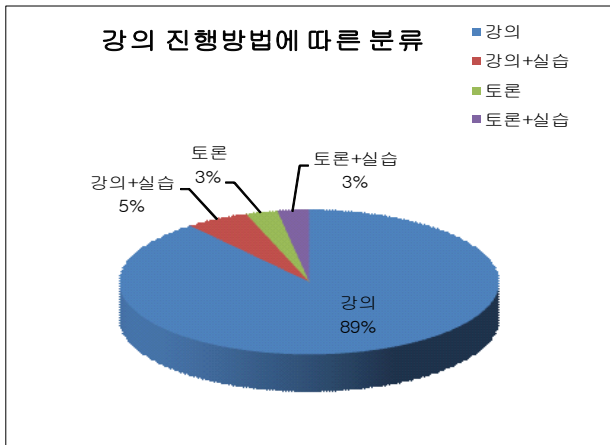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에서도 인터넷윤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04년 7개 대학을 중심으로 인터넷 윤리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66개 대학이 인터넷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출판사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약 82개 대학이 인터넷 윤리를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한국 대학 총장 협회에서 대학 인터넷 윤리 교과 개설을 추진하려는 협정을 맺는 등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확산 규모가 필요성에 비해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1.2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개설 특성 현황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개설 특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 게시된 45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윤리 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을 살펴보면 인문사회대학이 전체의 35%, 교양학부가

27%, 공과대학이 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개설 대학에 따라 다루고 있는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과목 성격상 교양 선택이 전체의 64%로 가장 많았고, 교양 필수가 19%, 전공이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개설이 되어 있더라도 교육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윤리를 전체 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한 경우가 전체의 64%인 반면, 인터넷윤리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목의 경우도 36%로 나타났다. 종합학문적인 특성을 갖는 인터넷윤리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야 하므로, 부분적으로 인터넷윤리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의 진행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일부 강좌가 토론 및 실습을 병행하기도 하나, 전체 개설 강좌의 89%가 설명형의 강의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특히 인터넷윤리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법이 타교과에 비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의 진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강의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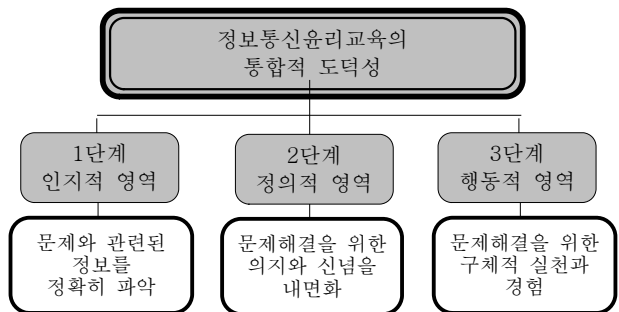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볼 때,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윤리 교육 실시 학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개설된 학교도 많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차별화를 하는 것에 앞서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내용에 대한 표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법의 활용 방안 등이 모색되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2 통합적 도덕성 이론

토마스 리코나는 인격의 구성요소를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으로 보고, 세 가지 구성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도덕성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는 무엇이 선인 줄 알아야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비로소 선한 사람,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 또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7].

인터넷윤리 교육도 도덕 교육의 한 영역으로 볼 때 이러한 통합적 도덕성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나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마음 속 깊숙이 느끼고 해결하려는 강한 의욕을 갖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올바른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어야 한다[6].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정의 · 피해와 심각성 · 관련법규와 대응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나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느끼기 ·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하겠다는 의지 · 자신의 다짐 선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차원의 실천 · 사회적 차원의 연대와 실천 · 관련 기관,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 |
|---|---|--|

<그림 2> 인터넷윤리 교육의 통합적 도덕성[4]

2.3 인터넷윤리 교육 교수법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설명형, 시범형, 팀티칭, 마이크로티칭,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토의, 동료교수법, 발견학습법, 문제해결학습법, 시뮬레이션, 개념지도법, 질문법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통합적 도덕성 이론이 적용되는 인터넷윤리 교육의 경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해 적절한 방법은 단순 강의에 의한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한다. 인터넷윤리 교육에 적합한 몇 가지 교수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1][8].

<표 1> 인터넷윤리 교육의 교수법

| 교수법 | 교육내용 |
|-----|---|
| 설명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설명 · 수업 중 짧은 시기 동안 이용 · 다른 기술과 병행 · 사실적인 내용 전달에 효과적 · 주제의 소개, 개념의 정의, 내용 복습, 어려운 개념 설명 · 수업 종료 시 이용 |
| 시범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원리 등을 예시하고 극적으로 제시, 학생들의 지적 기능 발달 · 시범내용의 관찰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의 성취를 강화 ·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 신문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 |
| 활동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 및 활동 학습의 기회 제공 · 토론, 역할놀이, 경진대회 등 |
| 탐구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의 지식 발견 · 탐색할 주제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탐구 · 교수자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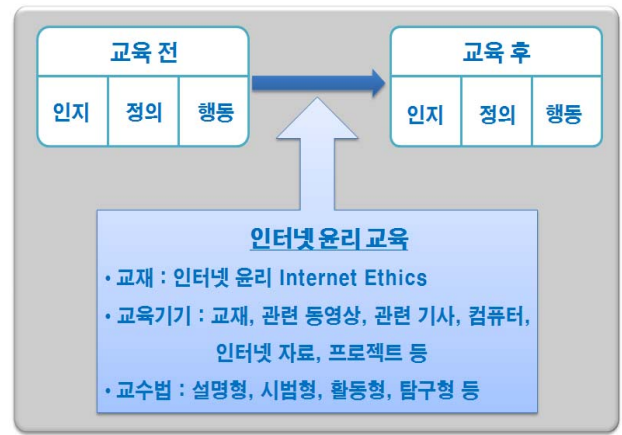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및 내용

3.1 연구 기본 틀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의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인지·정의·행동 영역에 대한 조사를 비교하여 인터넷윤리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주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윤리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연구의 기본 틀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 비교 연구의 기본 틀

3.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인터넷윤리 강좌를 수강한 학생 150명으로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1년도 2학기까지 총 4학기 강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 운영은 한 학기 3학점 교과로 수강인원은 40명으로 제한하였다. 수업 진행은 강의를 통한 설명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범형, 활동형, 탐구형 등 여러 교수법을 교과 내용 및 교육 목표에 적절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기는 교재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최근 관련 기사 및 인터넷 자료, 관련 동영상 등 다양한 보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2> 저작권 교육에서의 교수법 활용 예

| 교수법 | 교수내용 |
|-----|---|
| 설명형 | ·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저작권 관련 법률, 제도, 기술 등의 이해 |
| 시범형 | · 저작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 함양 · 기사, 뉴스 등 이용 |
| 활동형 | · 저작권의 필요성 강조 및 실천 의지 함양 · 저작권 보호 .vs.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찬반 토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칙 작성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
| 탐구형 | ·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재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 제안 · 저작권 침해 사례 스크랩 & 문제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안 |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 영역 | 설문내용 | 문항수 |
|----|---|-----|
| 인지 | · 저작권 개념과 관련 용어의 이해 · 침해사태에 대한 이해 · 저작권 관련법 및 제도, 기술에 대한 이해 등 다음 중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자신의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여 들었다. ② 대학 축제 때 판매용 DVD를 무료로 학생들에게 상영하였다. ③ 유료사이트에서 구입한 mp3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대학 수업 홈페이지에 올렸다. | 10 |
| 정의 | ·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의식 · 저작권 무단 사용에 관한 죄책감 여부 등 영리목적이지 아니하면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는 것은 나쁜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10 |
| 행동 | · 다양한 유형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험 p2p 웹하드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영상이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올린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10 |

3.3 연구 도구

저작권 관련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 관한 연구 도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윤리 Internet Ethics”라는 인터넷윤리 교재 내용[5]과 중학교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의 통합적 도덕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4]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연구 대상인 대학생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저작권에 대한 인지 영역 측정은 인터넷윤리 교재의 내용에 맞춰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9] 1급 수준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 여부를 묻는 10문항의 객관식 문제로 작성하였다. 저작권 관련 정의·행동 영역에 관한 각 문항은 Likert식의 5단계 평정척도(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지수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각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및 문항의 예시는 <표 3>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교육 전후의 학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지·정의·행동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교육 전후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연구 결과

인터넷윤리 수업 전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 영역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식 영역은 교육 전 25.80점에서 교육 후 31.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t=-5.25, p=.000$), 정의적 영역의 경우도 교육 전 28.31점에서 교육 후 32.54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t=-3.43, p=.001$). 그러나 행동적 영역의 경우, 교육 전 20.40점에서 교육 후 21.14점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90, p=.063$).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교육 등 인터넷윤리 교육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하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나타났으나 행동적인 변화가

지 가져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 시기가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4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학기별 차이에 대한 연구 환경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학기별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 학기 모두 수치상의 차이는 보였으나 인지, 정의적 영역에서는 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행동적 영역에서는 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체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다.

<표 4> 저작권 교육 전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점수의 기술 통계

| | 교육전 | 교육후 | t-검정 | |
|----|------------|------------|-------|------|
| | | | t | p |
| 인지 | 25.80±9.68 | 31.40±8.87 | -5.25 | .000 |
| 정의 | 28.31±5.07 | 32.54±6.31 | -3.43 | .001 |
| 행동 | 20.40±6.09 | 21.14±7.11 | -1.90 | .063 |

(유의주준 $p < .05$)

교육 전 인지적 영역의 각 세부 항목별 정답률의 평균을 낸 결과, 저작권에 대한 이해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해는 정답률 평균이 각각 51.3%, 49.5%로 양호한 편이나,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기술 등에 관한 지식에서는 19.7%의 정답률을 보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전후의 차이는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기술에 대한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관련 행동적 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인지·정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고 느끼는 거에 비해 침해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조사 결과 저작권 침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항목은 “p2p나 웹하드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영상이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문항으로 긍정적인 답을 한 경우가 전체 78.6%로 가장 심각한 침해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나 이미지 등의 자료를 도용하거나 교재 등을 구입하지 않고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연구 분석 및 제언

연구 결과, 저작권 교육 등 인터넷윤리 교육이 인지·정의·행동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덕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나,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하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으나 행동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인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저작권 침해 행위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합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저작권 교육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46.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저작권 교육을 받은 후 저작권 침해가 감소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0%가 저작권 침해가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4]. 이러한 두 결과는 대상에 상관없이 현재 진행되는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돕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소시키는 행동적 측면에 미치는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능력과 의지 및 습관이다[7].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잘못 알고 습관화되어 익숙해져 버린 것을 고친다는 것에는 많은 난제가 따를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와 같은 행동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 침해 행위로 인한 심각한 제약이나 피해 등을 경험하지 않는 한 수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습관화로 정착되기 이전부터의 인터넷윤리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고 느끼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해 행동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교과 영역보다 실천력을 길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강의식 교수법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중학교 저작권 교육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저작권 교육의 지도 방법의 63.3%가 설명식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한다[4]. 또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의 경우도 조사 대상의 90%에 달하는 강좌가 설명형의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저작권 교육을 위한 교수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고 대부분 강의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자는 다년간 인터넷윤리 강의를 해오면서 나름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인터넷윤리 교육의 대상별 특성이나 교육 환경별 특성, 다뤄지는 교육 내용 등에 따른 교육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윤리에 대한 사회 전반으로의 관심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인터넷윤리 교육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인터넷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중·고 및 대학에서 학교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는 학교 수업이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 이외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의 무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나가서는 정부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i-safe는 교과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과 학생, 부모,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교과외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교육적 관심이 인터넷 안전 교육의 실천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3].

우리나라도 인터넷윤리의 중요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단순히 학교의 교과 과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전반에서 인터넷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정 학교의 특정 교수가 운영하는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터넷윤리 교과목의 일부 영역인 저작권 침해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기에 이 결과를 전체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5.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인터넷윤리 강좌를 수강한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 역역별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인터넷윤리 수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과 정의적인 영역에서는 교육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행동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 저작권 교육 등 인터넷윤리 교육이 인지·정의·행동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덕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나, 행동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한다.

앞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이 실천적 교육으로 인터넷 역기능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윤리 교육의 조기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교육 환경의 개선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성희(2008).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 인터넷윤리 워크숍.
- [2] 강성희(2008).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인터넷윤리 워크숍.
- [3] 강성희(2009). **i-SAFE 인터넷 안전 교육**. 인터넷윤리잡지(Internet Ethics Magazine) 창간호.
- [4] 유민희, 강성희(2011). **정보통신윤리의 통합적 도덕성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한국정보교육학회.

- [5]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2011). **인터넷윤리 Internet Ethics**. 이한출판사.
- [6] 임상수(2003). **정보윤리교육의 방법론 모색**. 한국국민윤리학회 학술지.
- [7] 최경애(2005). **도덕과 교육에서 인격교육론의 의미와 중요성:리코나의 인격교육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8] 추병완(2001). **정보윤리교육론**. 도서출판 울력.
- [9] 한국 생산성 본부.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 <http://www.ieq.or.kr/>.



강 성 희

1991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사)

1995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2001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컴퓨터학과(공학박사)

2001~현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관심분야: 인공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데이터마이닝, 인터넷 윤리 교육

E-Mail: kangsh@mju.ac.kr